

이감 파이널 5-1

국어 영역

모의고사 총평

임 권 의 T

(회 파 27)

# 서문

반갑습니다. 회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 해서, 이감 파이널 5-1부터 그 총평을 써드리게 됐습니다. 이감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아리까리하거나 이 문제가 평가원스러운 문제가 맞는지, 원래 지문의 형식이 어떤 면에서 평가원스러운 건지 의구심이 가는 사람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문은 해설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해설서는 ‘지문 분석서’라는 이름으로 이감에서 제시하고 있기에, 제가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대치동을 비롯한 주요 학원가들이 이감 모의고사를 주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별생각 없이’ 이 모의고사를 쓰는 것 같기에 이 평문을 작성합니다. 이 평문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의구심들이 풀리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는 집단이 있지만, 당연하게도 평가원보다 평가원스러운 집단은 없습니다. 8년간 평가원 분석에만 올인한 제가 평문을 통해 이감 모의고사의 어떤 점이 평가원의 포인트인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평문에서는 ‘어떤 점을 포인트로 평가원스럽게 낸 것 같다’ ‘이 지문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이다’ 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얻어갈 것은 이것이다’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이 평문이 사실 모의고사의 한계를 잘 보완하는 지침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 의견’에 가깝기에, 이에 너무 집착하거나 과신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nanabeen@naver.com](mailto:nanabeen@naver.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은 아쉽게도 제가 일정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터라 불가능합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맞이할 ‘떨림’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평가원의 그 ‘패턴’을 기가 막히게 따라한 연계 모의고사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실 모의고사를 20회 가량 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수능 시험장이 주는 그 압박감이 조금은 더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 해주시던 말씀을 전하며 서문을 마칩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수능은 모의고사처럼.

# 이감 파이널 5-1 모의고사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평가원’을 잘 묘사했다고 느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감이 겪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난이도는 ‘2020학년도 수능’보다도 더 어려웠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화작에서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의미의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어렵다고 느꼈을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어렵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모의고사를 쳐야 수능을 잘 봅니다.

## [화작]

### 1-3

화작은 항상 지문 위의 ‘지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 정보에 집착하지 마세요. 평가원은 화작에서 세부정보에 대해 절대 안 물어봅니다. 화작은 독서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정보만 읽어내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강연’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연’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자료’가 따라오는 것이 평가원의 전통입니다. 이번 이감 모의고사는 이를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개정 후 표시 도안>																																													
<p><b>영양 성분</b></p> <p>1회 제공량 00(00g) 총 00회 제공량(00g)</p> <p>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p> <table border="1"> <tr><td>열량</td><td>000kcal</td><td></td></tr> <tr><td>탄수화물</td><td>00g</td><td>00%</td></tr> <tr><td>당류</td><td>00g</td><td></td></tr> <tr><td>단백질</td><td>00g</td><td>00%</td></tr> <tr><td>지방</td><td>00g</td><td>00%</td></tr> <tr><td>포화지방</td><td>00g</td><td>00%</td></tr> <tr><td>트랜스지방</td><td>00g</td><td></td></tr> <tr><td>콜레스테롤</td><td>00mg</td><td>00%</td></tr> <tr><td>나트륨</td><td>00mg</td><td>00%</td></tr> </table> <p>*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p>	열량	000kca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mg	00%	나트륨	00mg	00%	<p><b>영양 정보</b> 총내량 00g</p> <p>000kcal</p> <table border="1"> <tr><td>총 내용량당</td><td>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td></tr> <tr><td>나트륨</td><td>00mg 00%</td></tr> <tr><td>탄수화물</td><td>00g 00%</td></tr> <tr><td>당류</td><td>00g 00%</td></tr> <tr><td>지방</td><td>00g 00%</td></tr> <tr><td>트랜스지방</td><td>00g</td></tr> <tr><td>포화지방</td><td>00g 00%</td></tr> <tr><td>콜레스테롤</td><td>00mg 00%</td></tr> <tr><td>단백질</td><td>00g 00%</td></tr> </table> <p>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으로 개인의 필요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열량	000kca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mg	00%																																												
나트륨	00mg	00%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 ① ㉠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보시다시피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자료 역시 ‘지문’과 <자료>를 왔다갔다하며 풀어야 합니다. 강연이 나왔을 때 ‘지문과 <자료>’를 번갈아가며 보며 선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굉장히 잘 표현한 듯합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 역시 모두 평가원이 평소 내던 기조를 따른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4-7

말했다시피 화작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4~7] (가)는 공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는 ‘공개 토론’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의 글’입니다. (나)는 ‘청중’의 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자가 아닙니다. 이거 안 읽고 들어가면 좀 헛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중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밝힙니다. 토론 내용을 단순히 요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꼭 파악했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걸 읽어냈어야 6번 문제에서 엉뚱하게 4,5번 선지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중’이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5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A]와 [B]의 설명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럴싸하지만 절대 아닌 오답선지가 제법 보였습니다. 풀면서도 이감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선지들 중 뇌절은 없습니다. 이 선지들 꼼꼼히 보면서 ‘작문은 끝까지 선지를 다 봐야 하는구나’라고 느끼셔야 합니다.

7번의 2번 선지도 눈 여겨 보셔야 합니다. 맞으신 분들도 보고 교훈을 얻어가세요. 2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잘못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요약이라고 달려들지 말고, 그게 정말 해당 지문에 대한 요약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장 안에서는 너무 긴장한 터라 이를 못 알아채고 달려들 가능성도 있어요.

# 8-10

‘저감’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은 아마 단어의 어감으로 끼워 맞췄을 겁니다. 저는 ‘저감’ 정도는 ‘꼭 알아둬야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 정도는 한자어 끼워 맞춰서 맞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금융’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면, ‘금’리’와 ‘용’자를 떠올려서 돈 빌려주는 것과 관련짓는다.. 정도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8번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풀든, 다 읽고 풀든 그건 본인 습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뭐가 맞는 거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맞았으면 된 겁니다. 쉬운 문제이면서 평가원스러운 문제입니다.

9번의 4번 선지가 좀 까다로운데, 볼 만합니다. 평가원에서 이렇게 낸 기억은 딱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낼 법 합니다. 아마 작문에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무조건 이런 식이 아닐지.. 이 문제만큼은 ‘응 평가원 이렇게 안내~’가 아니라, ‘이렇게 낼 수 있겠다’가 돼야 합니다.

**④ ㉔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B]에서 서해·남해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 독해’의 칼날이 날카롭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작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매년 수십만톤의 탄소를 흡수’하지만, 이것이 ‘서해, 남해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 된 배경’은 아닙니다. 지문에서 ‘서해, 남해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 된 사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내용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화작에서 시간 좀 아끼고 다른 문제에 더 쏟아야지’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에게는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교훈을 얻어야 할 게, <보기>와 ‘초고’를 읽고 한번에 ‘이게 달라졌네’라고 파악하는 것보다, 선지를 읽으며 ‘너 말대로 이게 달라졌네?’라고 파악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5번 선지에서 ‘의미가 중복된 단어가 사용된 문장은 수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눈으로 비교하다가 깨닫는 거보다 선지를 보고 지문을 봤을 때 ‘오 그러고 보니 줄여 감축이라는 말이 중복이었는데 이게 고쳐졌네’라고 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 [문법]

## 11-12

지문형 문법의 내용이지만 다 아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 문제 모두 지문 없이도 은근히 잘 풀리는 문제여서 .. 솔직히 저는 실력을 측정하는 용도로 보는 모의고사라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문 의존도가 큰 문제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나머지 수록 지문들이 다 어려웠기에, 밸런스 조정을 위해 이렇게 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법 문제 중 유일한 3점 문제가 11번인데, 사실 이마저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니다. 또한 12번 문제는 조사VS접사 구분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주는 문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 13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보기>인데, 사실 이 <보기>는 이감 모의고사를 푸는 수험생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 것입니다. 또한 함정도 없었고 .. 3번 선지의 ‘ㄴ첨가 현상’은 너무 대놓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이시옷이 이렇게 나오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4

엄청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시대명사와 관련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길 바랐지만.. 아쉽습니다.

27.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10월 14번, 27%]

— < 보 기 —

ㄱ.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ㄴ.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잤다고 말했다.  
 ㄷ. 멋진 형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지어 왔다.

- ① ㄱ의 '그곳'과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 ②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③ ㄱ의 '구울'과 ㄷ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④ ㄱ의 '쉽게'와 ㄷ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⑤ ㄴ의 '가'와 ㄷ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교육청에 나왔다가 정답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문제인데 .. 이 정도 경종을 울리는 문제가 나와줘야 수험생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파트보다 문법이 너무 쉽게 나와서.. 6평 기조를 따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어렵게 공부해야 쉽게 풀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기조가 쉽든 어렵든 이감은 항상 어렵게 내서 그게 좋았거든요.

# 15

끊어적기 / 거듭적기 / 이어적기 문법을 1바퀴만 돌렸어도 이걸 모르는 수험생은 없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고전 문제를 내줬으면 했습니다. 정답 고르기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전반적인 문법의 문제 퀄리티 자체는 엄청나게 좋다고 느꼈지만, 난이도 자체는 나머지 영역들과 호흡이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독서]

# 16-21

'절대주의와 관계주의' 지문으로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융합지문이 나왔다는 점은 6평의 기조와는 살짝 다른데 .. 하긴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수능날 가서 융합지문 나올 수도 있어서요. 6평과 9평은 리트머스 종이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상당히 잘 낸 지문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문과 문제의 연결성이 평가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끔 나오는 '이감의 실수 문장'이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이견 저한테만 눈에 밝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4번째 단락의 '뉴턴의 공간 개념에 따른 태양계의 위치만 그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를 떠올려보자'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시사를 과하게 집어넣어서 한 문장 자체가 잘 안 읽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견 제가 현역이었던 13수능부터 이감 모의고사에서 발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거 빼면 이감이 거의 다른 모고보다는 수능 같아서 저는 이감을 고집하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3번째 문단에서 살짝 고전하는 게 정상입니다. 뉴턴과 양동이 관련 문단입니다. 이 경우 학생

들은 처음에는 이해가 가는 듯하지만,, ‘앵?’하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됐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풀 수 있는 만큼만 읽어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해하려고 문단에 집착하지 말고, 원리 자체를 머리에 그냥 넣어주세요. ‘아 그렇다는군... 나중에 이거하고 연관되는 <보기>문제 나오면 원리를 비교하며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리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평가원에서 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8번 문제 풀 때는 3문단으로만 돌아가서, 비교하며 풀면 됩니다. **지문이 어렵게 나와도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는 평가원에 정말 많습니다. 비교하면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 많으니 쫓지 마세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18번 문제를 망설였던 사람은 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거짓말쟁이 문장을 지문을 다시 풀어보세요. 마지막 문단 하나에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결국 원리를 ‘이해’는 못하고 강제로 납득 당한 다음 연결되는 문제와 지문을 번갈아 보며 보고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지문 정보량이 부족해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가 나옵니다.

19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에피쿠로스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킬러 선지였던 ‘ㄴ’에 신경쓰시는 것도 좋지만, ㄴ, ㄷ, ㄹ 모두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비판 문제는 ‘전제’를 공격합니다.

20번 문제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이걸 틀렸다면 5문단을 이해 못 하신 거거나, <보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보기>를 읽으면서 ‘지문하고는 반대 사례네?’라고 이해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틀리신 분들은 12학년도 수능 비트겐슈타인 지문의 <보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 22-25

기술 지문 치고 정보량이 적은 편입니다. 여기서 와장창 나왔을 거 같은데 ..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어렵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거의 다 ‘주지->예시’의 구조를 띠는데, 평가원 지문은 보통 주지를 보고 예시에 쉽게 적용합니다. 근데 이걸 .. 합병 정렬에서 너무 ‘주지->예시’ 구조를 불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걸 18번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26번의 답이 엄청 쉽게 나와서 망정이지, 어렵게 내려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술 지문에서 무작정 정보량이 엄청 많다면 cd지문을 추천 드리려고 했는데, 예시를 적용하기 불편하게 준 사례는 평가원에 없었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많은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처 받지 마세요.

# 33-37

지문 내용이 술술 읽혔을 겁니다. 엄청 쉬웠어요. 다만 33번이나 34번을 틀렸다면 문제가 큼니다. 적용을 잘 못하는 거기도 하고, 세부 정보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고전하신 분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33번 문제에서 1번 선지를 한 번에 pick 못했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큰 겁니다. 독해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다만 난이도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더 쉬울 것인데.. 그래도 습관 정립하기에는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36번은 지문 3번째 문단과 <보기>의 연결성을 봐야 합니다.

유래했다. 영화에서는 표정이나 소도구, 색채 등에 주목하게 하는 서레이드 기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 혹은 은유적 의미를 전달하거나 서사를 암시하곤 하는데, 만화에서 사용하기 힘든 이러한 연출 방식이 웹툰에서는 널리 사용된다.

<보 기>

색채는 영화에서 중요한 표현 요소이자 시각적 언어로, 영화 수용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 색채는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의 색조로 사용되어 감독의 의도대로 영화의 전반적인 이미지나 특정 장면에서의 분위기를 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소도구나 배경에 사용되어 인물의 심리적 상태나 상황 등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색채의 상징성이 적재적소에 도입된 경우에 특정 색채의 반복적 사용을 인지한 수용자는 인물의 심리 상태나 이후 사건을 암시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보시다시피 <보기>의 ‘색채’라는 말은 지문에서 서레이드 기법의 일부로 소개됩니다. 보자마자 서레이드 기법인지 알고 문제 풀이에 들어갔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PS : 35번 문제의 3번 선지는 ‘은근한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왔다갔다 하기만 해서는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정도 추론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문학]

## 26-29

장경전을 왜 굳이 골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작품들도 많은데, 뭐 중요한 지문들 나중에 하려나 봅니다. 장경전은 이번에 EBS에 처음 수록된 작품이라 저도 생소했습니다. 국문과 전공에서도 스치듯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인물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읽어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본문 들어가기 전, 줄거리를 보며 장경 =한림 학사=대원수(송나라) VS 남만,서용 이라고 쓰고 읽었습니다.

다 엄청 쉬웠습니다만, 27번의 1번 선지 함정 엄청 잘 냈어요.. 기가막히더라구요. 이런건 이감이 정말 잘 냅니다. 몇 번이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학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힘써야 합니다. 문학과 지문에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해요.

29번 틀리신 분들은 2014학년도 수능 B형 옥루몽 <보기> 문제 / 2020학년도 6평 조용전 큰 잔치 문제를 풀어보세요. 완전히 똑같은 유형으로 틀리게 냈습니다. 지문에 근거하는 연습이 부족하시기도 하고, 평가원이 어떻게 내는지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 30-32

쉬웠습니다. 다만 <보기>에 충실하지 않으셨다면 31번 4번 선지를 잘 못 골라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은 2020학년도 수능 현대시 <보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38-42

38번의 2번 선지에 대해서만 할 말이 있습니다. '동동'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도 맞고, '농가월평가' 역시 '청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정합성의 문제에서는 NO PROBLEM입니다.

다만 이건 제가 자습서를 워낙 많이 봐서 알고 있던 지식이라는 겁니다. 동동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온 구절은 제가 알기로 '녹사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가 근거인데, 사실 저는 '능력 시험'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원망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덜 명쾌하고 너무 추론하게끔 하지 않았나 .. 싶기도 하고, 출제하신 분께서 너무 많이 아셔서 '이정도는 당연히 아는 거겠지?'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이 선지 고르신 분들 아마 다른 선지 지우고 이 선지 고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43-45

최일남 작가의 소설은 '흐르는 북'이 제일 많이 출제됐는데 .. 아마 2016학년도 쯤이니 나올 때가 되긴 했습니다.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사실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정도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올 게 정해지지, 현대소설은 항상 변화구였습니다.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공부 삼아 알

아답시다. 44번 풀면서, 선지 판단에 있어 ㄱ~ㄴ 뿐만 아니라 ㄱ~ㄴ 주변 맥락까지 따져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혹시나 45번의 3번 선지에 걸려 넘어졌다면, 아직 기출을 덜 봐서 그런 겁니다.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연결성에 익숙지 않으면 걸려넘어지는 선지입니다.

이 자료의 저작권은 임권의T(희파27)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무료 배부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무단배포를 환영합니다 ^^

단, 이 자료를 이용한 2차 저작물 활용 / 수업에 활용 등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